

# “그늘막 · 생수로 무더위 날린다”

### 익산시, TF팀 가동... 시민 체감형 폭염 종합대책 마련

익산시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상황관리 TF팀을 본격 운영한다. 이를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지난해 시민들의 호응이 컸던 그늘막과 얼음 생수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을 확대해나간다.

먼저, 시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했던 횡단보도 그늘막을 총 159개 주요 도로에서 운영한다. 그늘막은 자폭이 최대 5m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머무르기 충분한 크기여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8곳에 추가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매년 수율을 늘릴 예정이다. 이어 그늘막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태풍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도도 낮추고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는 도로 위 살수차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인북로~무왕로~남북로, 합영, 황등 오산 등 4개 구간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운행해 노면 온도를 낮추고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무더위 속 시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시원한 얼음과 생수도 비치된다.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28개소를 지정해 아이스박스를 비치하고 하루 2회씩 얼음과 생수를 채워 시민들에게 시원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얼음 생수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만큼 설치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올해는 경로당, 보건지소, 금융기관, 스마트버스 승강장 등 506곳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학교 지역농수산 글로벌셀링사업단장인 서선애 교수(무역학과)는 군산대학교 지역농산물 글로벌셀링사업단 교육과정 을 군산의 전통시장인 공설시장 청년몰(유투브스)에서 글로벌온라인셀링 실습과정으로 진행했다.

## ‘글로벌 밀키트 체험방송’

### 군산대 지역농수산 글로벌셀링사업단, 온라인셀링 성료

군산대학교 지역농수산 글로벌셀링사업단장인 서선애 교수는 ‘군산대학교 지역농산물 글로벌셀링사업단 교육과정’을 군산의 전통시장인 공설시장 청년몰(유투브스)에서 글로벌온라인셀링 실습과정으로 진행했다.

이 교육에는 (주)투어앤비디어 아카데미 김민식 대표, 도시숲미디어 유선주 대표가 참여했다.

글로벌 온라인셀링 과정은 일본판이고,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이주여성(일본셀러)들과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중어중문전공 학생들이 함께 모여 ZOOM과 유튜브를 연동한 라이브방송 체계로 일본 현지와 연결해, 글로벌 온라인셀링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습했다.

6월 28일부터 7월 14일,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글로벌 온라인셀링 즉, EC(디지털수출 글로벌온라인셀링) 실습과정은 다문화이주여성(일본 셀러)들과 함께 한국제품을 홍보하고 알리면서 온라인방송으로 직접 주문을 받아 국제 배송(소규모 무역)을 진행하는 실습 및 체험·교육과정이다.

이번에 홍보된 상품은 군산의 명물인 군산깻벌랭이와 달고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이다. ZOOM과 유튜브로 현지(일본-다문화이주여성 SNS네트워크)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글로벌 밀키트 체험방송’ 방식이다.

체험방송 중 한국청년들(군산대학교 사업단 학생)은 제품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문화이주여성(일본 셀러)들이 사용해보면서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실시간 양방향소통 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선애 사업단장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SNS를 통한 글로벌 무역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고 무역학과 학생들이 SNS 순기능을 통해서 한국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무역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관기자

## 익산시, 전국 일자리대상 고용부 특별상 수상

### 전북 일자리평가 우수상 이어 전국 우수사례 인정 받아

익산시가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특별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익산형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 받게됐다.

익산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상과 5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부가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일러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취업자 수, 일자리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해 수상 단체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성, 지역 일자리 사각지대 보완 정책 등 익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특히 익산형 일자리 상생 협력 체결, 청년정책인 전국 최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실’을 가동 직접 일자리 추진 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 중점도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다이로온 일자리 사업에 순수 자 체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익산시는 올해 5월 전라북도 일자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 평가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상을 받은 영광을 차지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상황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과 함께 협력해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익산형 일자리 정책을 시민 누구나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보석박물관, 키즈보석아카데미 개최

전국 유일 보석박물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전문 보석아카데미가 개최된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귀금속·보석을 주제로 익산 역사와 문화·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2022 키즈보석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보석 반짝 추억 반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보석박물관 전시실 투어를 비롯해 신비한 보석 탄생 스토리텔링을 통한 귀금속·

보석 감정 및 감별 체험 등 수준 높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석 감정 및 감별에는 원광대학교 귀금속주얼리디자인과 보석 감정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또한 귀금속·보석 예술 체험에는 보석박물관 학예사 및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전담하여 프로그램을 맡는다. 은 이니셜 반지 만들기, 보석 별자리 액자 만들기 등 예술체험과 보석·레고 키링 만들기 공동체 활동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 학생들에게 익산의

문화와 예술과 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 마무리에는 멋짐상·도움상·나눔상 및 체험학습 수료증을 수여해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우고, 체험 결과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증정하며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기 20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 11일, 12일, 18일 등 총 4기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보석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수당 20명씩 총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5곳 무료 개장

익산지역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어린이물놀이장이 곳곳에서 개장한다.

익산시는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5곳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4일간 무료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는 운영하지 않아 3년 만의 개장이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5개 권역별로 나눠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함열돌순공원 내에 각각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매시간 50분 운영하고 10분씩 휴식 시간을 갖는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미취학 어린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유아부터 초등학생 5학년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한다. 또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풀장 그늘막과 쉼터, 물놀이장 시설하고 구급약품과 심비약을 비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린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불합치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는 한동연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 위원으로는 정경호, 오성민, 김충영, 김미선, 조규대 의원을 선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시내권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순항’

군산시는 올해 총사업비 58억원(국비 29억원)을 투입해, 시내권 주민의 주택·상가(686세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순조롭게 설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내권 융복합 사업은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시작으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설비 용량은 3MW 정도이며,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2년 안에 자부담금 회수가 가능하며, 향후 20년 이상 전기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임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전기료 절감 등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만족을 더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서남부권 45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동부권 48억원을 투입하여 1.169세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바 있다.

/\*군산=김판관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